EUGENE INVESTMENT & SECURITIES

자료공표일 **12 April 2013**

Weekly Strategy

Strategist 곽병열
Tel. 368-6132
kbr87690@eugenefn.com

Junior Strategist 정동휴
Tel. 368-6646
yes@eugenefn.com

Junior Strategist 오경진
Tel. 368-6144
kjoh@eugenefn.com

Weekly Strategy는 다음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 기업이익 발표, 기타 이벤트 등을 통해 단기적인 시장영향력을 가늠하고자 작성했습니다. 중장기 전망과 달리 단기 이슈에 따른 증시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전략: 추경 발표에 따른 국내 경기부양 기대

■ **한국 추경예산 발표-태양절 이후 북한 리스크 등에 주목**

(주간 KOSPI 예상밴드: 1,930~2,000pt)

다음주는 한국 추경예산 발표-태양절 이후 북한 리스크, 미국 어닝시즌 절정, 중국 1Q13 GDP 등이 주요 변수이다. 북한 리스크라는 불확실성 요인은 상존하나,

1) 추경예산 발표에 따른 국내 경기부양 기대감,

2) 태양절 이후 북한 리스크의 peak out 가능성,

3) 중국 1Q13 GDP발표를 통한 경기방향성의 bottom out 재확인

등의 우호적인 변수들을 통해 국내 증시는 반등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원화약세 유지에 따른 이익모멘텀 개선 가능성을 반영할만한 IT와 관련 부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을 권한다. 더불어 추경 등 국내 경기부양 기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도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 **추경 예산안 공개: 17~20조원 규모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예상**

정부의 추경 예산안은 4/16일 전후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추경 규모가 충분하고, 추경 지출내역이 재정승수가 높은 분야에 집중될 경우 국내증시의 디커플링 완화에는 긍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과거 상반기 예산조기집행과 하반기 추경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2005, 2009년의 경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상승반전 및 주식시장 강세장이 동반화되었던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다만 추경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관건이다. 4/16일 예산안 제출되더라도 임시국회 폐회일인 30일까지 추경예산안이 처리되긴 촉박한 상황으로 특히 4/24일 재보궐 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정기국회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1Q13 어닝시즌: 어닝시즌 절정, 미 증시의 강세지속 예상**

연초 미국 증시는 양호한 4Q12 어닝시즌이 상승 촉매제로 작용한 바 있다. 1Q13 어닝시즌은 순이익 컨센서스가 전년동기대비 감소를 나타내고 있지만 컨센서스 하향조정은 상당부분 기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 어닝시즌 개시를 알리는 알코아의 어닝서프라이즈를 감안할 경우 1Q13 어닝시즌은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면서 국내외 증시에는 중립 이상의 변수가 될 것이다.

국내 기업실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지속되나 그 폭은 제한적이다.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큰 IT는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IT 이외 업종의 부진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건설, 기계, 방송광고 등 전망치가 하향되는 업종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주 전략: 추경 발표에 따른 국내 경기부양 기대

한국 추경예산 발표-태양절 이후 북한 리스크 등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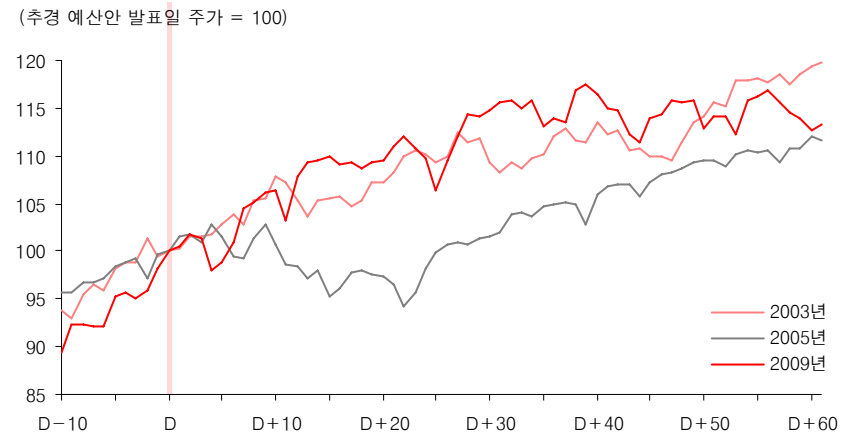
[주요 일정]

- (한국)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제출 (16일 예상)
- (북한)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15일)
- (미국) 베이지북 발표 (18일)

[Strategy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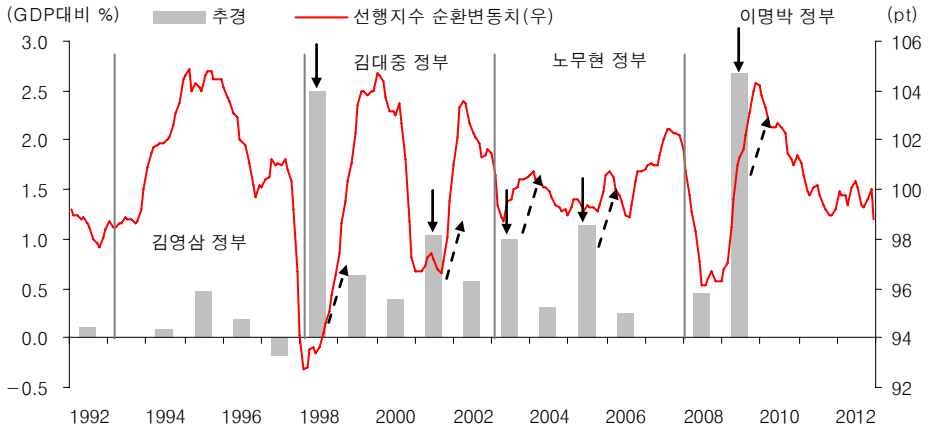
- (추경예산 발표) 4월 임시국회에서 여 · 야 정부는 최대 20조원대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상 돌입. 정부의 추경 예산안은 4/16일 전후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 만약 추경 규모가 충분하고, 추경 지출내역이 재정승수가 높은 분야에 집중될 경우 국내증시의 디커플링 완화에는 긍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함. 과거 상반기 예산조기집행과 하반기 추경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2005, 2009년의 경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상승반전 및 주식시장 강세장이 동반화되었던 경우가 일반적이었음 (도표 1, 2 참조)
- 다만 여야가 추경재원 마련방안을 두고 '적자국채 발행이냐, 증세냐' 논란을 빚을 것을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관건임. 현오석 부총리는 4/10일 "올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다음 주 국무회의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 이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4월 말께 추경예산안이 의결돼 민생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언급했음. 그러나 4/16일 예산안 제출되더라도 임시국회 폐회일인 30일까지 추경예산안이 처리되긴 촉박한 상황임. 특히 4/24일 재보궐 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정기국회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도표 3 참조)
- (북한 리스크) 정권 2년차에 들어선 김정은 정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대내적으로 권력 안정화, 대외적으로 미국 등 주변 국가로부터의 관심 유도를 일으키고 있음. 현재 미사일 은닉과 전개를 반복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조정 중. 다만, 한국 정부가 북한을 관망하고 있는 만큼 전면전 및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함. 15일 태양절을 전후로 북한 리스크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과거 북한 도발 시 보여준 국내 증시의 회복 사례를 감안할 때 4월 중 북한 리스크는 peak out 예상
- (유럽의 신용지표) S&P가 키프로스 신용전망을 '안정적' 으로 상향하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되면서 유럽의 신용지표는 안정을 유지함. 자금시장의 조달금리를 나타내는 유로 Ted spread는 전주 대비 하락하며 낮은 레벨을 유지 중이고, 유럽 CDS프리미엄을 지수화한 iTraxx 지수도 전주보다 하락함. 또한, 스페인-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프랑스 은행주 주가는 지난주 대비 상승하며 유럽 재정위기 완화를 반영함 (도표 4~7 참조)
- (결론) 다음주는 한국 추경예산 발표-태양절 이후 북한 리스크, 미국 어닝시즌 절정, 중국 1Q13 GDP 등이 주요 변수임. 북한 리스크라는 불확실성 요인은 상존하나, 1) 추경예산 발표에 따른 국내 경기부양 기대감, 2) 태양절 이후 북한 리스크의 peak out 가능성, 3) 중국 1Q13 GDP발표를 통한 경기방향성의 bottom out 재확인 등의 우호적인 변수들을 통해 국내 증시는 반등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도표 1 추경 발표 시 주가반응: 긍정적인 주가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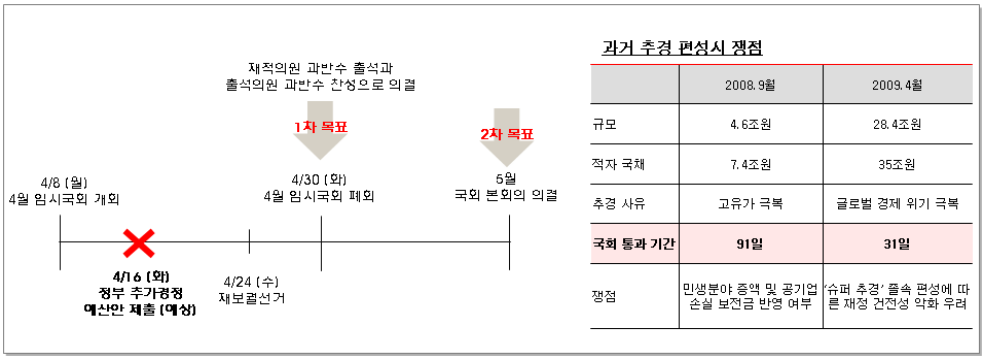
자료: KRX, 유진투자증권

도표 2 경기선행지수와 추경: GDP 대비 1% 수준의 추경 시 선행지수의 반응도 컸음



자료: 기획재정부,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추경 일정: 국회 통과 시 5월까지 소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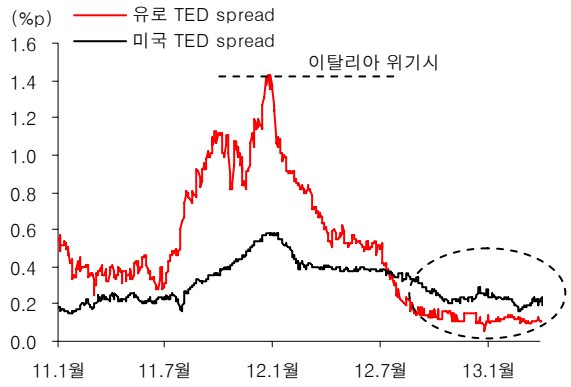


과거 추경 편성시 쟁점

	2008. 9월	2009. 4월
규모	4.6조원	28.4조원
적자 국채	7.4조원	35조원
추경 사유	고유가 극복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국회 통과 기간	91일	31일
쟁점	민생분야 증액 및 공기업 손실 보전금 반영 여부	'슈퍼 추경' 졸속 편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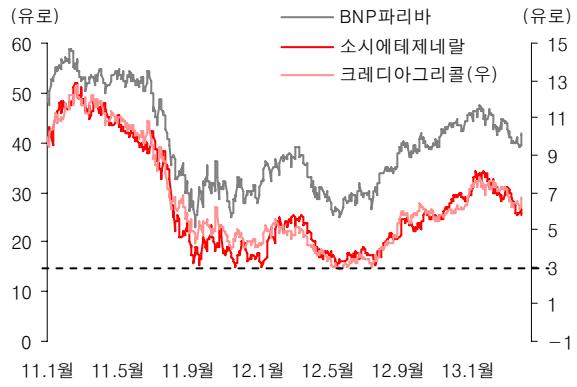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4 TED 스프레드
: 미국-유럽, 여전히 안정적인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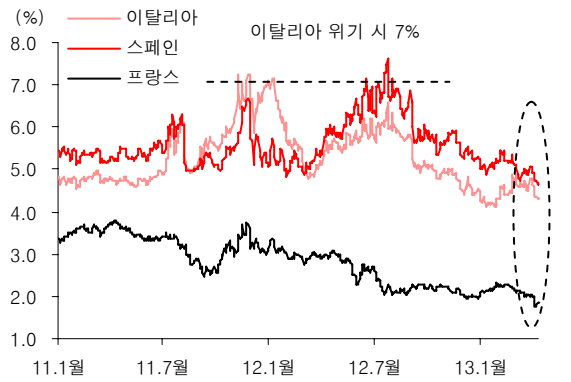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TED스프레드 = Libor 3개월물 – 국채 3개월물

도표 5 프랑스 주요은행 주가
: 은행 주가는 지난주 대비 상승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6 유럽 주요국의 국채 10년물
: 이탈리아-스페인 하락 안정 지속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7 iTraxx 지수
: 지난 주 대비 하락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매크로: 중국 경제의 bottom out 재확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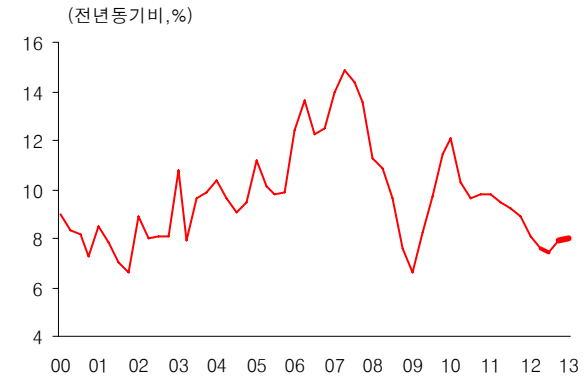
[주요 일정]

- (미국) 3월 주택착공, 3월 건축허가, 3월 산업생산, 4월 NAHB지수 (이상 16일)
  3월 경기선행지수 (18일)
- (중국) 3월 1Q13GDP, 3월 산업생산, 3월 소매판매, 3월 고정자산투자(이상 15일)

[Strategy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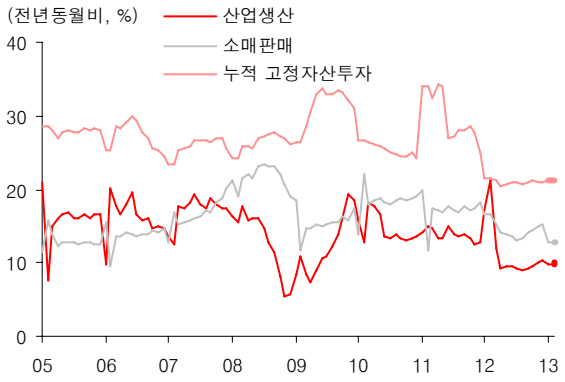
- (중국 1Q13 GDP) 1Q13 중국 성장률은 8.0%로 3Q12를 저점으로(7.4%) 2개 분기 연속 상승 사이클이 진행된 것으로 컨센서스는 형성됨. 1~3월 중국 제조업 PMI가 경기회복의 기준선인 50을 상회했고,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금번 1Q13 GDP 발표는 중국 경기방향성의 Bottom out 국면임을 재확인 시켜줄 것으로 예상함 (도표 8 참조)
- (중국 3월 실물지표) 3월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는 각각 전년동월비 10.0%, 21.3% 증가해 1~2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12.7% 증가해 1~2월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 연초 중국 제조업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도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 또한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을 통해 실물지표의 향후 개선세가 예상 (도표 9 참조)
- (미국 3월 주택착공/건축허가) 3월 주택착공은 전월비 1.96% 증가, 건축허가는 전월비 0.64% 증가한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 3월 건설업 고용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시장 컨센서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도표 10 참조)
- (미국 2월 산업생산/가동률) 3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비 0.3% 증가하여 증가 추세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 3월 ISM 제조업 지수내 생산지수가 2월 57.6에서 3월 52.2로 하락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다만, 3월 설비가동률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78.4%로 2월의 78.3% 비해 상승한 것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향후 미국 투자 회복세가 유지 수 있다는 점을 의미 (도표 11 참조)
- (경제서프라이즈 지수) 미국-일본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함. 특히 미국은 여전히 여타 지역대비 높은 레벨은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는 우월한 상황으로 해석함. 다만 유럽의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는 전주 대비 감소하며 0선을 하회하는 부진한 트렌드를 나타냄 (도표 12 참조)
- 중국과 EM의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는 전주 대비 하락하며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감 (도표 13 참조)

도표 8 중국 4Q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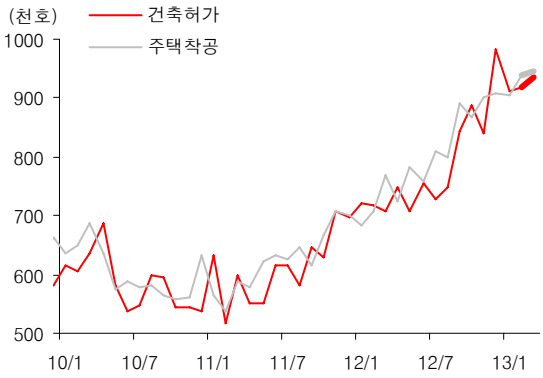
자료: 중국 통계국, 유진투자증권

도표 9 중국 3월 실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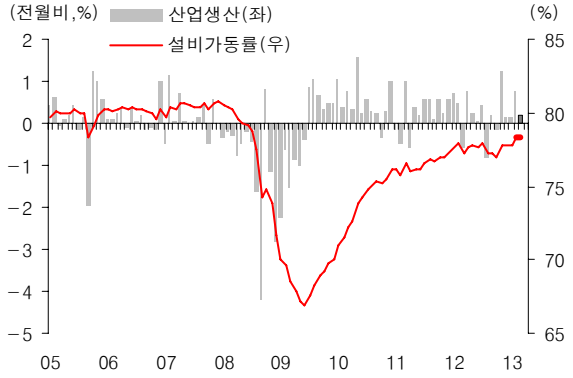
자료: 중국 통계국,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미국 3월 주택착공/건축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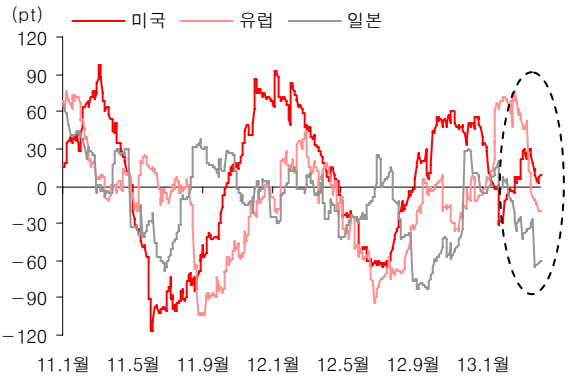
자료: 미국 상무부, 유진투자증권

도표 11 미국 2월 산업생산/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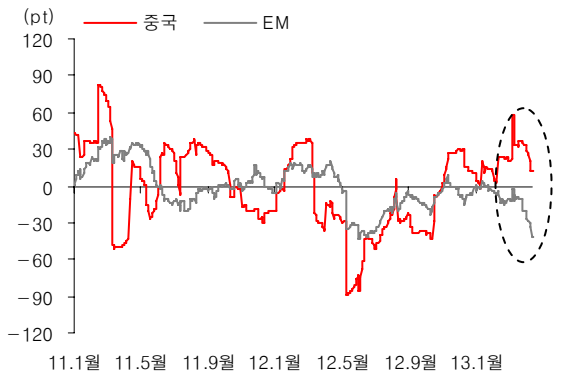
자료: 미국 연준, 유진투자증권

도표 12 선진국 경제서프라이즈 지수
: 미국-일본 소폭 상승, 유럽 하락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3 신흥국 경제서프라이즈 지수
: 중국-EM 하락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1Q13 어닝시즌: 어닝시즌 절정, 미 증시의 강세지속 예상

[주요 일정]

- (미국) 씨티그룹 (15일), 골드만삭스, 인텔 (이상 16일)
  뱅크오브아메리카 (17일), 모간스탠리 (18일), IBM (19일)
  (한국) POSCO, LG화학, 롯데케미칼, 삼성증권 (이상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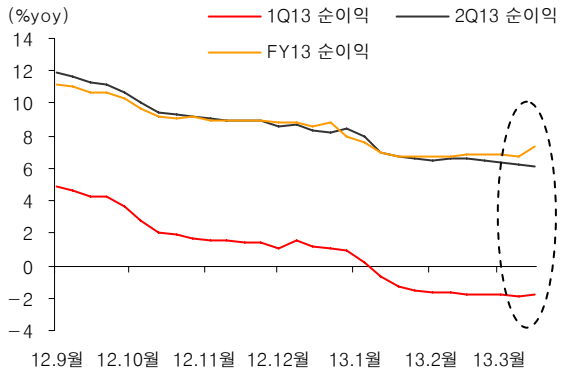
[Strategy Insight]

- (미국 분기 및 연간실적 전망) 미국 S&P500 구성종목군의 1Q13 블룸버그 순이익 전망치(4/5일 기준)는 전년동기비 -1.8%(전주 -1.9%, 12월말 +1.5%)로 전주대비 소폭 상향 조정됨. 다만 2Q13는 전년동기비 +6.1%(전주 +6.2%, 12월말 +8.7%)로 전주에 이어 하락함. 한편 FY13는 전년동기비 +7.3%(전주 +6.7%, 12월말 +8.8%)로 전주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됨 (도표 14 참조)
- (국내 1Q13 어닝시즌) 국내 기업의 1Q13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주대비 -1.0% 하락함. 세부 업종별로는 정유(+3.3%), 증권(+1.1%), 디스플레이(+0.2%)가 전주대비 상향 조정됨. 이에 반해, 건설(-11.7%), 기계(-8.4%), 방송및광고(-8.3%), 화학(-6.2%), 운송(-5.5%), 보험(-3.7%), 자동차및부품(-3.0%) 등은 부진한 하향 조정 영역에 머물러 있음 (도표 16 참조)
- (종합) 연초 미국 증시는 양호한 4Q12 어닝시즌은 상승 촉매제로 작용한 바 있음. 1Q13 어닝시즌은 순이익 컨센서스가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컨센서스 하향조정은 상당부분 기진행된 것으로 판단함. 어닝시즌 개시를 알리는 알코아의 어닝서프라이즈를 감안할 경우 1Q13 어닝시즌은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면서 국내외 증시에는 중립 이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함 (도표 19~24 참조)
- 특히 다음주 실적발표 예정된 금융업의 1Q13 순이익은 -1.7%(전주 -2.1%, 12월말 -1.9%)로 3월 이후 반등추세가 지속. 1Q13 중 미국 경제지표의 개선 트렌드를 감안하면 미국 금융업의 실적발표는 낮아진 컨센서스를 일정부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함
- 국내 기업실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지속되나 그 폭은 제한적임.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큰 IT는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IT 이외 업종의 부진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판단함, 1) 1Q13 중 양호했던 미국의 경제지표, 2) 국내 IT 업종의 신제품 출시효과, 3) 원화약세 유지에 따른 환율효과 등은 여전히 IT 업종의 상향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함. 다만 건설, 기계, 방송광고 등 전망치가 하향되는 업종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 (도표 25~28 참조)

[Portfolio Id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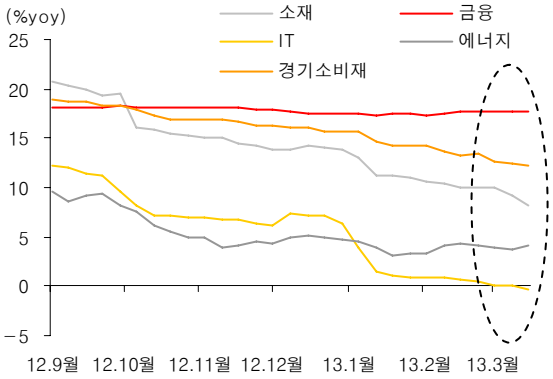
- (미국 섹터) 1Q13 순이익 전망치(4/5일 기준)는 금융이 -1.7%(전주 -2.1%, 12월말 -1.9%)로 3월 이후 상향추세가 지속됨. 경기소비재는 +2.1%(전주 +1.8%, 12월말 +7.4%), 에너지 -6.3%(전주 -6.6%, 12월말 -4.9%)로 금주 반등함. 한편 IT -4.1%(전주 -3.9%, 12월말 +2.7%), 소재 +0.9%(전주 +0.9%, 12월말 +8.3%)은 전주와 같은 수준이 유지되며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음 (도표 15 참조)
- (국내 섹터) 세부적으로는 금주 S-Oil 실적전망 상향이 정유 업종 실적 전망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한편 증권 업종의 대부분의 기업 실적이 하향조정 된 가운데 현대증권 및 한국금융지주의 실적 상향으로 증권 업종 이익전망은 전주대비 소폭 상향됨. 반면 GS건설이 2013년 대규모 적자 가이던스를 발표한 가운데 삼성엔지니어링도 하락이 두드러지며 건설업종의 큰 폭 하향이 나타남 (도표 16~18 참조)
- (결론) 원화약세 유지에 따른 이익모멘텀 개선 가능성을 반영할만한 IT와 관련 부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을 권함. 더불어 추경 등 국내 경기부양 기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도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도표 14 미국 분기별 순이익 전망
: 1Q13-FY13 전주대비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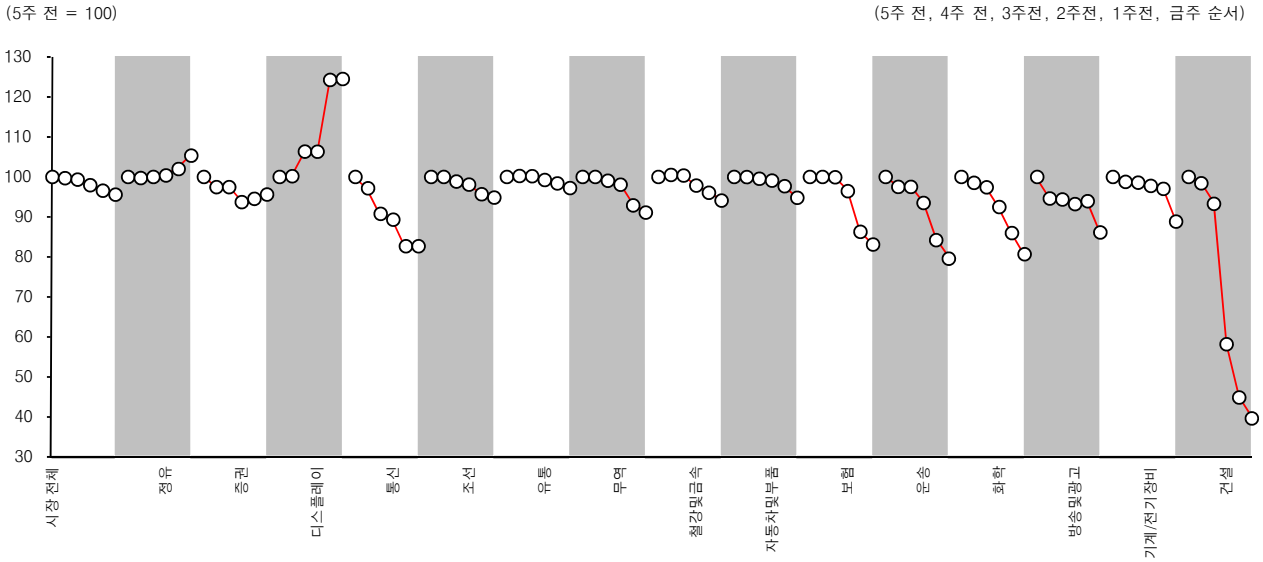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5 미국 1Q13 업종별 순이익 전망
: 금융-경기소비재-에너지 상향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16 국내 1Q13 업종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정유-증권 상향, 건설-기계-방송및광고 하향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주: 유니버스는 KOSPI+KOSDAQ 시가총액 5000억 이상 + 영업이익 추정치 존재하는 191개 종목으로 구성. 업종순서는 전주대비 영업이익 상향조정 기준
실적 발표한 기업은 실제치 반영

도표 17 1Q13 영업이익 추정치 Big Mover (상위)

Code	Name	시장구분	업종	1Q13 영업이익 (억원)			전주대비
				5주 전	1주 전	금주	
A001230	동국제강	KS	철강및금속	-70	5	165	3203%
A071050	한국금융지주	KS	증권	752	775	856	11%
A097230	한진중공업	KS	조선	153	123	134	9%
A010950	S-Oil	KS	정유	3,717	3,587	3,871	8%
A012630	현대산업	KS	건설	443	405	430	6%
A029780	삼성카드	KS	기타금융	888	883	935	6%
A161890	한국콜마	KS	화장품	58	60	63	5%
A003450	현대증권	KS	증권	279	283	29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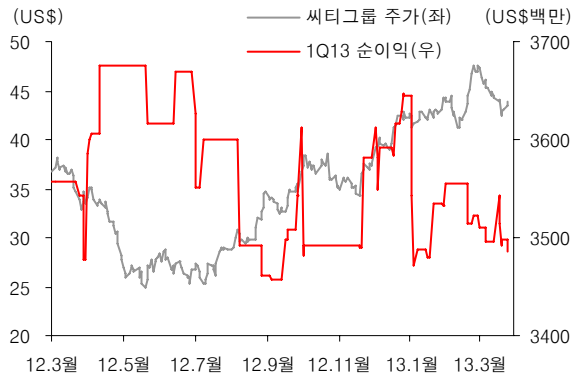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도표 18 1Q13 영업이익 추정치 Big Mover (하위)

Code	Name	시장구분	업종	1Q13 영업이익 (억원)			전주대비
				5주 전	1주 전	금주	
A034120	SBS	KS	방송및광고	15	2	-28	-1446%
A003490	대한항공	KS	항공	305	-227	-519	-129%
A010620	현대미포조선	KS	조선	230	71	18	-75%
A011200	현대상선	KS	해운	-258	-258	-429	-66%
A047810	한국항공우주	KS	기계/전기장비	527	527	214	-59%
A020560	아시아나항공	KS	항공	290	170	94	-45%
A130960	CJ E&M	KQ	방송및광고	106	84	59	-30%
A117930	한진해운	KS	해운	85	-189	-244	-29%
A120110	코오롱인더	KS	화학	797	698	547	-22%
A112040	위메이드	KQ	IT소프트웨어	98	68	58	-14%
A056190	에스에프에이	KQ	디스플레이	207	206	180	-13%
A011790	SKC	KS	화학	407	196	172	-13%
A000120	CJ대한통운	KS	운송	296	259	228	-12%
A032830	삼성생명	KS	보험	3,054	3,054	2,726	-11%
A007070	GS리테일	KS	유통	183	147	133	-9%
A011170	롯데케미칼	KS	화학	1,546	1,313	1,191	-9%
A037560	CJ헬로비전	KS	방송및광고	380	354	325	-8%
A023160	태광	KQ	기계/전기장비	142	136	125	-8%
A010130	고려아연	KS	철강및금속	2,130	1,883	1,740	-8%
A051910	LG화학	KS	화학	4,985	4,413	4,091	-7%
A047050	대우인터내셔널	KS	무역	532	464	436	-6%
A071840	롯데하이마트	KS	유통	377	374	352	-6%
A073240	금호타이어	KS	자동차및부품	1,136	1,107	1,042	-6%
A010520	현대하이스코	KS	철강및금속	1,036	1,012	954	-6%
A010120	LS산전	KS	기계/전기장비	369	329	310	-6%
A031430	신세계인터내셔날	KS	가정용내구재	98	94	89	-5%
A000270	기아차	KS	자동차및부품	8,670	8,080	7,696	-5%
A005940	우리투자증권	KS	증권	559	385	36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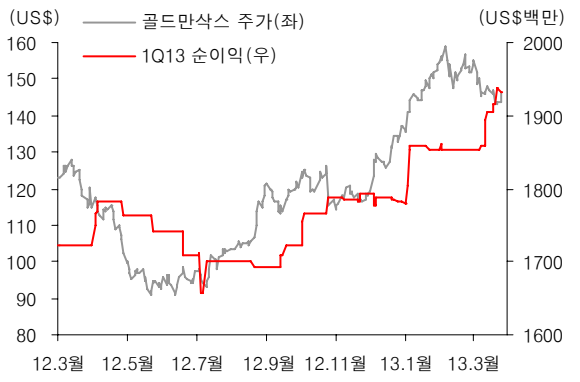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유진투자증권

도표 19 씨티그룹 순이익 컨센서스(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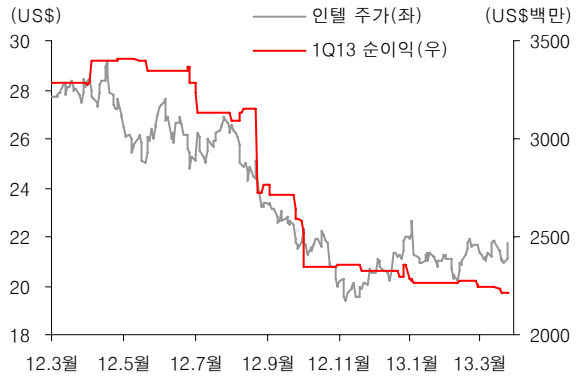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0 골드만삭스 순이익 컨센서스(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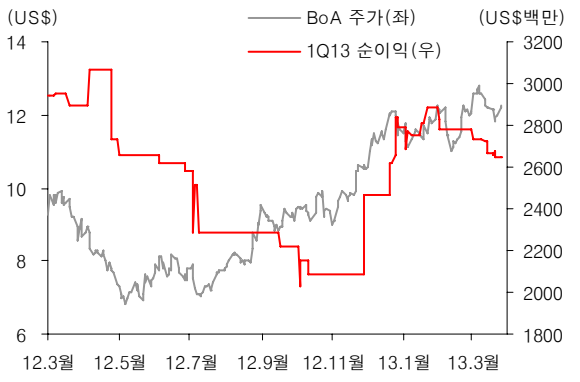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1 인텔 순이익 컨센서스(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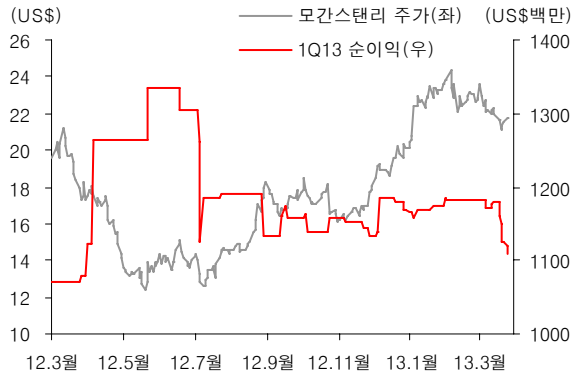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2 뱅크오브아메리카 순이익 컨센서스(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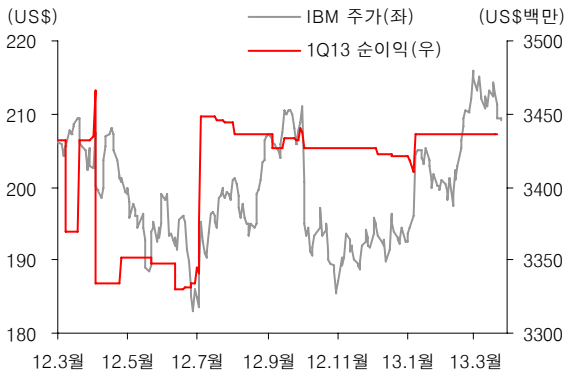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3 모간스탠리 순이익 컨센서스(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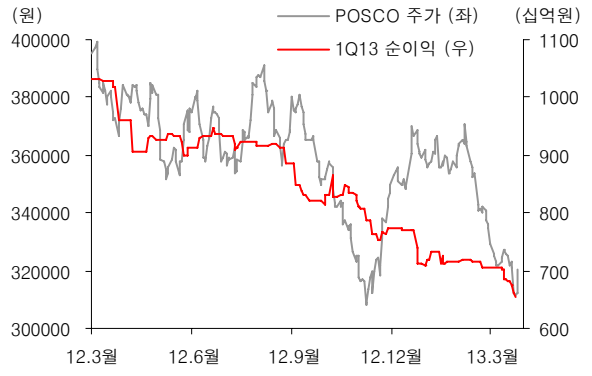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4 IBM 순이익 컨센서스(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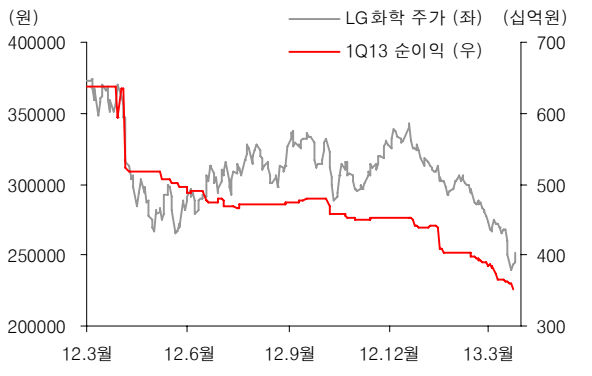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5 POSCO 순이익 컨센서스(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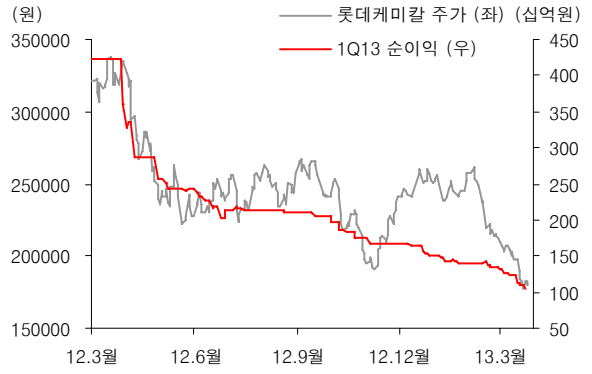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6 LG화학 순이익 컨센서스(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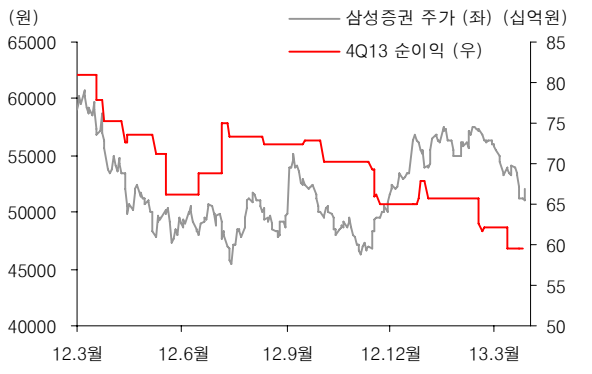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7 롯데케미칼 순이익 컨센서스(19일)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8 삼성증권 순이익 컨센서스(19일)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9 다음주 (4/15~4/19) 주목할 경제/증시 일정

	15일(월)	16일(화)	17일(수)	18일(목)	19일(금)
주요 경제지표 발표	■ 미국 4월 뉴욕 제조업지수 (C: 7.00, P: 9.24) ■ 중국 1Q GDP (C: 8.0%yoy, P: 7.9%yoy) ■ 중국 3월 산업생산 (C: 10.0%yoy, P: 9.9%yoy) ■ 중국 3월 소매판매 (C: 12.7%yoy, P: 12.7%yoy) ■ 중국 3월 고정자산투자 (C: 21.3%yoy ytd, P: 21.2%yoy ytd)	■ 미국 4월 NAHB지수 (C: 45, P: 44) ■ 미국 3월 소비자물가 (C: 0.0%mom, P: 0.7%mom) ■ 미국 3월 주택착공 (C: 935K, P: 917) ■ 미국 3월 건축허가 (C: 945K, P: 939) ■ 미국 3월 산업생산 (C: 0.2%mom, P: 0.8%mom) ■ 미국 3월 설비가동률 (C: 78.4%, P: 78.3)	■ 한 3월 생산자물가 (P: -1.6%yoy)	■ 미 3월 경기선행지수 (C: 0.1%mom, P: 0.5%mom)	
기업실적발표	■ 씨티그룹 (C: 1.184, P: 0.800)	■ 골드만삭스 (C: 3.821, P: 5.600) ■ 인텔 (C: 0.409, P: 0.480) ■ 야후 (C: 0.253, P: 0.320) ■ 코카콜라 (C: 0.447, P: 0.450) ■ 존슨앤존슨 (C: 1.404, P: 1.190) ■ 삼성엔지니어링 (C: 151.8, P: 170.0) ■ 신세계 (C: 66.0, P: 99.2) ■ 모두투어 (C: 5.3, P: 5.1)	■ 뱅크오브아메리카 (C: 0.230, P: 0.290) ■ 이베이 (C: 0.624, P: 0.700) ■ KT&G (C: 264.4, P: 181.0)	■ 모간스탠리 (C: 0.560, P: 0.450) ■ 마이크로소프트 (C: 0.736, P: 0.760) ■ 구글 (C: 10.640, P: 10.650) ■ 버라이존 (C: 0.655, P: 0.380) ■ OCI (C: -17.5, P: -73.6) ■ 롯데하이마트 (C: 36.5, P: 27.4) ■ LG하우시스 (C: 15.1, P: 14.2)	■ IBM (C: 3.062, P: 5.390) ■ GE (C: 0.347, P: 0.440) ■ 맥도날드 (C: 1.265, P: 1.380) ■ POSCO (C: 858.9, P: 633.1) ■ LG화학 (C: 433.7, P: 364.1) ■ 롯데케미칼 (C: 129.5, P: 23.1) ■ 삼성증권 (C: 73.8, P: 24.0) ■ 대우증권 (C: 44.9, P: 19.9)
Macro & Market Event	■ 북한 태양절 (김일성 생일)	■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제출(예정) ■ 두들리 연준총재 연설	■ 듀크 연준총재연설 ■ 코처라코타 연준총재연설 ■ 블러드 연준총재연설	■ 미국 베이지북 발표 ■ 로젠그린 연준총재연설 ■ 코처라코타 연준총재연설 ■ 래커 연준총재연설	■ 라스킨 총재연설

자료: Bloomberg, Quantiwise, 각종 언론자료 취합
주: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임, C = 컨센서스, P = 전기(전월)치임. 밑줄은 중요도가 높은 항목임
미국 실적은 주당 순이익 기준(달러), 한국 실적은 영업이익(십억원)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